

법의 날(25일)에 만나본 김관재 광주지법원장

“공판중심주의 40~50% 이미 정착”

“강·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 엄중 처벌”

“국민에게 재판다운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관재(53) 광주지방법원장은 ‘제44회 법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지법 법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개혁의 선두에 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지난해 7월21일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뒤 대법원이 추진 중인 각종 사법개혁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는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 활성화를 위해 해석 ▲부인(否認)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법정 모니터링 도입 ▲증인 보호 프로그램 도입 ▲ 양형기준 확립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법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

의와 민사재판에서의 구술심리 활성화를 하루빨리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올해 유·무죄 다툼을 벌이는 부인(否認)사건 전담재판부를 최대 3개로 늘리고 내년에는 형사사건 재판부를 아예 양형 전담재판부와 부인사건 전담재판부로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유·무죄 다툼과 양형 다툼을 분리해 재판을 할 경우 판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 많은 시간을 할애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 공판중심주의가 사실상 정착돼 재판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광주지방법원의 민·형사 재판에서 있어 구술심리주의는 70% 정도, 공판 중심은 40~50% 가량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최근에는 광주·전남지역에 적합한 구속기

준 및 양형기준도 만들고 있다.

그는 “올 들어 광주지역에서 강·절도가 활개치고 있는 것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 지역 실정에 맞게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거 침입 절도에 대해서는 가정과 생명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더욱 엄중히 처벌할 생각이다.

김 법원장은 “국민이 바라는 사법 시스템 정착을 위해 광주지법 전 구성원이 개혁과 변화에 구슬땀을 쏟고 있다”면서 “지역민들이 조금만 참고 협조해주시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역민들의 관심을 바랐다.

경진 출신인 김 원장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25년간 광주·순천·전주지역에서 근무했다. ‘교수 법관’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연구에 몰두하는 선비형 법관이라는 주변 평가를 받고 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사진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 법의 날 다채로운 행사

‘제44회 법의 날’을 맞이해 광주에서 법 정신을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지검은 25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박준영 전 남지사와 김관재 광주지법원장과 신상규 광주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질서 확립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범죄 없는 마을 선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홍합·생굴 패류 독소 주의보

해수부 기준치 넘는 독소 발견…부적합 통보

시중에 유통중인 홍합과 생굴에서 기준치를 넘는 패류 독소가 발견됐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홍합과 생굴에서 기준치를 넘는 패류 독소가 발견됐으나 이를 패류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했다.

기준치가 넘는 패류 독소가 발견된 패류는 여수 가마만의 진주담치(홍합), 경남 통영 고성의 생굴, 여수의 홍합살, 경남 남해의 피홍합 등 4종이다. 경남 남해의 피홍합에서는 기준치 (100g당 80㎍)의 4배에 가까운 100g 당 305.6㎍의 패류 독소가 발견됐다.

해양부는 전라남도·경상남도·통영

시장·남해군수·여수시장 등 생산지에 이를 패류가 생산된 해역에 대한 체취금지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해양부는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에 현재까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해역에서 생산된 여수 가마만의 진주담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만큼 이 해역에 대해 패류 독소 조사를 강화하고자 지시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3~5월에 패류에서 독소가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이유는 패류가 섭취하는 알레산 드리움이라는 독소를 함유하고 있는 플랑크톤이 이 시기에 증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화전당 기능 토론회

광주 ‘문화중심도시 성공 위한 범시민단체 연석회의’(대표 임낙평) 회원 등 20여 명은 24일 오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흥보관에서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 보완·공간 활용도 등 ‘전당의 기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언론노조 前 간부 횡령 혐의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전 간부의 횡령 고발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발장 및 자료를 검토한 뒤 고발인인 이준안 위원장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총무부장 김모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해 김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난달 출범한 언론노조 4기 집행부는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총무부장 김씨가 2004년부터 3년 동안 예산 3억3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

김씨로부터 시인을 받아냈다. /연합뉴스

토플 응시권 거래 완전 차단

미교육평가원 “한국 전용 창구 개설”

토플 ‘대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응시권 거래 행위가 앞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플 출제기관인 미국 교육평가원(ETS)은 24일 “현재 한국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는 응시권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만간 한국 전용의 별도 접수 창구를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TS는 두 달 안에 한국에 ETS 직할 사무소를 개설하고

한국 전용 접수 창구를 개설해 한국인 응시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타인에 대한 양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IBT(Internet-based TOEFL)는 접수 계정번호와 비밀번호를 넘겨 주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변경한 뒤 시험을 칠 수 있었다. /연합뉴스

국비무료모집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과정)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재직근로자과정(교육기간)

주택관리사 주말반(토, 일)

교육기간: 5/5~7/1

민법, 회계원리, 관계법규, 권리실무, 시설개론

(토 14:00~18:00, 일 10:00~17:00)

공인중개사(월~토)

민법, 법령, 세법, 공시법, 부동산학개론, 공법

교育기간: 5/1~6/30

(월~금 19:00~22:30, 토 15:00~18:30)

주택관리사(월~토)

민법, 회계원리, 관계법규, 권리실무, 시설개론

교육기간: 6/4~7/31

(월~금 19:00~22:30, 토 15:00~18:30)

사무자동화(월~금)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시무자동화설기

개강: 5/13

교재무료제공

기타 사항

■ 모집대상: 고용보험에 기입증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재직근로자

■ 기타사항: 수료후 100% ~80%환급

■ 접수: 수료증자: 훈련실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자자 직강

■ 버스노선: 전남여고→봉선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암17, 518

• 예술의 거리 입구→봉암07, 금남56, 대촌70, 대촌170

• 문화전당역(구 도청) 수진07, 첨단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6, 금남57, 금남58, 금남59, 풍암61, 문흥80, 두암82, 518, 1187

■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 현대직업전문학교

■ 위치: 전남여고→봉선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암17, 518

• 전남여고→봉선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암17, 518

• 예술의 거리 입구→봉암07, 금남56, 대촌70, 대촌170

• 문화전당역(구 도청) 수진07, 첨단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6, 금남57, 금남58, 금남59, 풍암61, 문흥80, 두암82, 518, 1187

■ 제2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3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4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5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6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7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8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9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10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11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12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13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14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15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16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17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18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19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20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21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22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23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24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25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26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27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28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29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30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31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32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33회 졸업한 자격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